

월/요/광/장

이재민



사람은 대부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공을 꿈꾼다.

과와 거의 같은 폭이다. 1mm, 1cm 차이로 승패가 갈리며 피를 말한다.

당신은 성공 비결을 아시나요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답력을 지니지 않으면 그 경기는 무조건 패하게 된다.

그래서 남자 양궁의 중국선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당당하게 키우기 위해, 사나운 호랑이 꼬리를 만지는 훈련까지 했다고 한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항상 가파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기 초월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럽고 존경스럽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절대강자도, 절대약자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이든 습관화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가 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패할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찾아내며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굳은 의지와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할리우드 액션배우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실베스터 스탤론은, 외모 때문에 대학 면접에서 엘리트배우로 수리공이 적격이라는 말을 들었다.

마릴린 먼로도 그랬다. 섹시하지 않다는 20세기 폭스에서 해고를 당했고, 컬럼비아 영화사에서는 연기력이 떨어지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열쇠는 바로 내 안에 있다. 굳은 의지와 노력이 곧 운명의 열쇠다.

훗날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능력과 매력'이 있는 줄 왜 미처 몰랐을까하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자신의 잠재력을 끄집어내 오색찬란한 보석으로 다듬어야 한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인생에서 성공의 기회를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잡고 말겠다는 '의지'와 끈질긴 '노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는 진실을, 자라나는 아들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순천향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北 추가도발 대비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반도 안전과 평화가 풍전등화(風前燈火)처럼 위태롭다. 북한의 무모하고 야만적인 연평도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어제 오전 11시18분께 연평도에서 포성이 청취 되는 등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돼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떤 추

가도발에도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약 북한이 무책임한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우리가 받은 피해의 열배 백배를 되돌려준다는 강력한 응징으로 대수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듯 매일수백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감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인제든 강력한 응징과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하며,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완벽한 대책을 갖추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런 점에서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광주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취약하다니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접어들었다. 수은주가 떨어지면서 난방기구나 온열기구 등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로인해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13일 새벽 광산구 우산동 한 모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유독가스 5층에서 잠을 자던 3명객 3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서의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문제점 또한 화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모델의 이면도어가 비좁아 45m 짜리 고가 사다리차가 접근하지 못한 채 7.2m 짜리 사다리 2개를 이용할 수 밖에

에 없었고, 작업 공간도 좁아 구조가 늦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같이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광주시 소방본부에 최근 유흥주점과 숙박시설 등 1720곳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피 341건의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비상벨 미작동과 비상구 관리 소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불법건축물 등도 있었다고 한다.

비상벨이나 비상구 관리문제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유독가스 등도 있다.

無等鼓

휴대폰과 노트북, PDA와 같은 첨단 디지털장비를 휴대한 채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고 한다.

휴대폰과 노트북, PDA와 같은 첨단 디지털장비를 휴대한 채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을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 PC까지 손안의 인터넷 세상이 활짝 열리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흥생활을 한다고 했다.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 PC까지 손안의 인터넷 세상이 활짝 열리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흥생활을 한다고 했다.

엔스(Homo sapiens)와 구분해 '호모 인터넷쿠스'(Homo interneticus)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네티즌의 반사회적 행동이다. 악성 댓글과 정보 유출은 물론 인터넷 과몰입으로 인한 충동

조절장애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터넷 게임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굶겨 죽이는가 하면 최근엔 게임중독에 빠진 중학생이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 PC까지 손안의 인터넷 세상이 활짝 열리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흥생활을 한다고 했다.

스마트폰에 이어 태블릿 PC까지 손안의 인터넷 세상이 활짝 열리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는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흥생활을 한다고 했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

데스크 시각

김주정



중국의 육상 영웅 류시양(27, 110m허들)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때 세계기록보유자이기도 한 그는 13억 중국인은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황색탄환'이다.

박태경은 "류시양과 붙어 이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앞을 보고 달렸을 뿐이고, 앞으로 또 달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른 이춘현(광주체육중·고 졸업)이 쓴 광저우의 스토리도 감동적이다.

아시안게임 영웅들은 돌아왔지만

한국 근대 5종의 개척자로 불린 그도 부친상과 무릎 인대 파열이라는 악재는 건디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그는 오랜 방황 끝에 다시 도전해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을 따냈다.

42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인 광저우아시안게임이 쉼 수 많은 드라마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들이 쉼 감동의 스토리는 더욱 특별하다. 특히 박태경과 이춘현처럼 무명의 선수들이 시련을 딛고 일궈낸 승리는 하루하루 막막한 세상살이에 지친 국민의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기에

충분하다. 이들 외에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선수들이 전해온 승전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을 뛰게 했다.

여자 수영 평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정다래(19·여수출신)는 '만년 국내용'이라는 비아냥을 이겨내고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평평 울었다.

머리에 침을 콧고 복통을 이겨내며 바둑 2관왕에 오른 이슬아(19·여수출신), 적지 않은 나이에 여자 멀리뛰기를 제패한 정순옥(27·진도출신), 근육통을 이겨내고 남자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덕현(25·광주시청)도 지역 출신이었던

승리의 찬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이클의 나아름(20·나주시청)은 포인트 레이스 결승에서 넘어지는 상대선수에게 걸려 메달의 꿈을 접어야 했다.

남과 북도 페어플레이를

역을했지만 나아름은 아픈 몸을 이끌고 도로 독주경기에 다시 나섰고, 배구·농구 대표팀도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기약했다.

승자와 패자가 함께 한 감동의 열전 16일은 이렇게 끝났다. 그런데 28일 귀국한 영웅들에게는 승리의 노래 대신 목욕을 했다.

남북관계에선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것처럼 선의의 경쟁을 하는 페어플레이가 불가능한 것일까. 전쟁의 위기를 딛고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는 묘책은 없는 것인가. 이번엔 국민이 나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체육·여론매체부장〉 jnews@kwangju.co.kr

법조칼럼

강성두



피의자 및 피고인 등 가해자들의 인권이 강조되어 온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이 매우 소홀하였다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강력범죄에 따라 사회 여론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되면서 범죄예방차원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화해져 왔으며, 정치권에서도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효과라는 필요성에 따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률안을 추진하였고, 결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

피의자의 신상 공개

등 헌법상의 기본권보호원칙들에 입각한 보호논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흉악하고 중대한 범죄인에 대해서는 그 신상을 미리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피해자의 인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종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며 타인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유린한 반인륜범죄나 흉악범죄자의 경우에 한하여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 특별법의 신상공개규정은 아직 관철이 확정되기 이전에 흉악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유죄판결의 확정 전에 수사기관이 일의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수사 기관에 신상공개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권을 부여하고 있어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의자에게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기회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범죄인 가족의 신상이 공개될 개연성도 큼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의 가족들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사 언론기관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극히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의 전말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가족들을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마케팅 부족 외국서 찬밥 신세

김치 등 우리 문화 널리 알려야

최근에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느끼게 됐다.

김치는 전세계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발효 식품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다. 그러나 외국의 식품점에서는 기껏해야 작은 병에 담겨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일본김밥인 사시미롤은 화려한 포장으로 매장을 장식하고 있으며 가격도 스테이크에 비해 비싸다.

제대로 된 마케팅이 부족해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온돌문화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는 전선으로 바닥을 데우는 미국식 온돌문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천년 이어져 온 우리의 온돌문화가 미국식 온돌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케팅이다. 이제는 훌륭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